

광산구 주민 누구나...매주 목요일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

서봉·임곡 2곳 광산구 직접 운영 연간이용권 등 체감형 정책 추진

매주 목요일 광산구 주민은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산구 주민이라면 20만원 저렴한 가격에 파크골프장 연간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광산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크골프장 이용권인 체감형 정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역 공공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을 늘려 스포츠를 매개로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광산구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먼저, 매주 목요일을 '광산 파크골프하기 좋은 날'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이 날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산구인 주민만 입장이 가능하며, 광산구가 운영 중인 구장(서봉·임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주민만 구매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20만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별도 발권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해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줄서기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연간 이용권은 접수처인 '서봉파크골프장(황룡강3자전거리 77)'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한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주민은 별도 발권없이 연간 이용권을 소지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50%를 감면받아 10만원에 관내 구장 2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1회로 이용권 사용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역에 상관이 없는 가격으로 운영하던 것을 동일 생활권인 광주지역이 아닌 광주 외 지역주민에 대해 이용료 차등을 두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최근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우리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최초 파크골프장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가 직접 운영 중인 파크골프구장(서봉·임곡)은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쳐 잔디 보식 등을 위해 휴장한 후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당초 서봉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2년 11월 개장했으며 광주 최초 36홀로 호남권 최대 규모다. 기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광산구가 직접 운영한다.

임곡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새롭게 개장하는 곳으로, A·B코스로 나누어 각각 9홀씩 총 18홀을 갖췄다.

광산구는 두 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민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이용권 등 체감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체육진흥과(062-960-8833)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과학으로 소통...가족과 함께 '별밤캠프'

북구·국립광주과학관 협업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립광주과학관과 협업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이하 별밤캠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별밤캠프'는 과학을 기반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및 전신관 일원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지역의 초·중학생 가족 180명이며 기수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제공될 프로그램은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D펜 활용 열쇠고리 제작 ▲전문가 천문교육 ▲야간 천체 관측 ▲과학관 관람 등으로 구성됐으며 1박 2일간 운영된다.

이번 캠프는 오는 6-7월의 기간 중 참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1기(6월 14일-15일), 2기(6월 28일-29일), 3기(7월 19일-20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수당 15가구(6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eyemouse@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062-410-8483)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과학 접근성 확대를 위해 1-2기 참여자는 취약계층 가정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캠프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과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학 협력 기관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8년 국립광주과학관·광주과학기술원·동부교육지원청 등 15개 산학연관 기관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별밤 캠프', '과학 골든벨' 등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남구, 정보 취약계층 대상 운영

광주시 남구가 매년 변화하는 복지 분야 서비스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는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명이 남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매일 1-2회씩 방문해 변경된 복지제도 안내를 비롯한 식으로 운영된다. 이 두 복지관은 이용자들이 잠재적 복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면서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남구는 또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누락 서비스 신청, 권리구제 방법, 타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다채로운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보를 취득하고서도 서류 작성 등이 서툴러 서비스 신청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해당 주민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직권 신청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확실하게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날 두 차례에 걸쳐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시범 운영에 나서 주민 33명에게 복지서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최근 재개장한 운천어린이공원 내 미끄럼틀.

<광주시 서구 제공>

어린이가 디자인·설계...운천어린이공원 재개장

운천초 4학년 직접 참여...가장 큰 미끄럼틀·27m 짚라인 등 설치

광주시 서구에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공원 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 서구는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인근의 운천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지난 3일부터 공원을 전면 개방했다고 7일 밝혔다.

운천 어린이공원은 지난 1994년 처음 조성됐으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낙후되며 리모델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구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 지난 2023년부터 주민·전문가·공무원·공원 디자이너로 구성된 '공원 디자인단'을 꾸려 공원 재 정비에 나섰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들이 공원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다.

서구는 운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어린이공원'을 주제로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열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대표적인 소원이었던 '서구에 서 가장 큰 미끄럼틀'과 '27m 길이의 짚라인'이 실제로 설치됐으며, 달리기·점프·매달리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놀이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개선했다. 서구는 화장실 위치 조정,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통로 신설, 앉을벽과 벤치 설치로 접근성과 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오래된 수목은 최대한 보존 조치했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티하우스, 안전을 위한 CCTV 및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췄다.

김기장 서구청장은 "아이들의 꿈이 담긴 공원이 어른과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주민과 함께 만든 이 공원이 지역사회의 행복하고 소중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일반주택가도 음식물쓰레기 '아무때나' 배출

동구, 지원동·지산동 5곳에 '종량기' 설치...환경개선·감량효과

공동주택에만 설치·운영했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가 광주시 동구의 일반 주택가에도 설치됐다.

광주시 동구는 지원동, 지산동 등 일반 주택가의 재활용 동네마당 5곳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지역 내 아파트 외 주택 비율이 44%(세대 기준)에 달하는 점, 종량기 설치 시 골목길 환경개선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종량기는 카드 인식 후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만큼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납부 필증(스티커)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전용 수거용기(통)를 가득 채울 필요 없이 소량의 음식물도 버릴 수 있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동구는 ▲진양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재활용 동네마당 ▲지원1동 공영주차장 재활용 동네마당 ▲성태경로당 앞 공영주차장 재활용 동네마당 ▲성촌경로당 앞 주차장 재활용 동네마당 ▲지산2동 재활용 동네마당 등 5곳에 종량기를 설치했다.

배출 수수료는 1kg 당 95원으로 기존 납부필증(스티커)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고, 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설치된 종량기는 동구에서 개발한 자원순환 플랫폼 어플 '동구라미 온'과 연동돼 개인별 배출량 통계도 제공한다. 동구는 이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콘테스트' 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선불형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전용용기 사용으로 인한 냄새 등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일반 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